

2014 년 8 월 10 일 주일 설교  
와싱턴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 "배에서 내려라"(Get Out of the Boat)

마태복음 14:22-33

'선교'라는 단어만 들으면 알려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교회가 선교를 잘 못 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나다니엘 선교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지역에 가서 건물을 짓기 전에 관계를 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 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의 선의를 주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대표하여 한 사람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 후에야 건물을 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정석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정식 학교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과후 학교를 고집합니다. 그 지역 학교의 교육을 돕는 것이 더 옳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 지역 교회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지역 교회들을 돕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처음 센터를 지을 때부터 우리는,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센터의 소유권을 주민들에게 넘겨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일 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음악캠프를 하는 동안, 동네 아낙들이 부엌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쭈뼛쭈뼛, 기웃기웃 하더니, 이제는 주인처럼 와서 자기 일처럼 봉사를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자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장태전 장로님께서 불러 놓고 가르치던 꼬맹이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들은 센터에 와서 자기 공부도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동생들 돌보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번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 팀과 함께 동등한 리더십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와 음악캠프를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지은 새로운 센터는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센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아이들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연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미래의 아이들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렉서너리에 따라서 마태복음 14 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는 홀로 산에 들어가 기도하십니다. 어둠이

호수 위에 내리자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뜸 "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 내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초청하셨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순간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그에게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배에서 뛰어 내리기로 선택합니다.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배 안에서 풍랑에 시달리던 그는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심하는 순간 몰려오는 파도에 겁을 먹었고 베드로의 몸은 물 속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안전지대 바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배에서 뛰어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작정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맞게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부르시 않으십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듣고 그분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위험하고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다니엘 선교를 돌아보며, 그동안 안전지대인 배를 뒤로 하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 뛰어 내려 모험을 감수했던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미국의 환경을 떠나 덥고 불편하고 위험한 길에 나선 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사양하고 까갈첸에서 온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심한 김승석 선교사가정이 아니고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너라!" 하실 때, 베드로처럼 "예!"하고 뛰어내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나다니엘 선교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뛰어 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묘미입니다.

안전지대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제일 불리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 내렸듯, 안전지대를 뒤로 하고 뛰어 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신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회자료> 2014 년 8 월 10 일 주일 설교

"배에서 내려라"(Get Out of the Boat)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07 장(통 273)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마태복음 14 장 22-33 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읽으면서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선교' 혹은 '전도'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 3) 바른 선교와 바른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 4) 선교와 전도를 위해 당신이 벗어나야 할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6. 기도
  - 1) 나다니엘 센터와 김승석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2) 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살게 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510 장(통 276)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